

‘쌍특검·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김건희 특검’ 8가지 의혹 수사…‘채상병 특검’ 안철수 與 유일 찬성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김 여사의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도록 했으며, 두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는 만큼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연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안) 역시 재석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채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 발의했다. 앞서 야당은 21대 국회 말기와 22대 국회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요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세 차례 모두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 세 차례 특검법은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줬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로, ‘김 여사 특검법’과 같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



국회의원 의원들이 19일 오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법에서 국가 재정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 성격이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안도걸 “유류세 인하로 세수 13조 이상 감소”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5조 1000억원, 2023년 5조 2000억원 정도 세수 감소했고 올 상반기에도 2조6000억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조 3000억원, 경유가 7조 6000억원을 차지했다. 2023년도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의 감세분이 더 많아진 까닭이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



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인 하를 지속했다. 문제는 작년 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이다. 2023년도 56조 4000억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월 기준 전년보다 8조 8000억원 덜 걷힌 상태다. 안도걸 의원은 “유가·물가 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기다리겠다”

국힘 최고위 “추석 민심 냉담…골든타임 지나고 있어”

국회의원 한동훈 대표는 19일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며 의료 차질과 의대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씨는 추워질 것이고 골든타임은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관련 인사들 다수와 일대일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대화해 보면 확실히 간극이 좁혀지고 어떤 문제를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면서 “그간 쌓여온 불신은 물론 크게 남아 있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이 문제를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제가 만난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았

다. 충분히 설득하면서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모두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자. 국민 건강만 생각하자”고 요청했다. 한 대표는 또 “추석 민심은 냉담했다. 정치권 전체에 대해 과연 정치가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며 “국민의힘이 더 심기일전해야겠다”고도 했다. 그는 “결국은 민생”이라며 “더 민심을 듣고 더 민심에 반응해야 한다. 저희부터 모자란 부분을 챙기고 채워가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김 여사 공천개입 사실이면 탄핵 스모킹건”

조국혁신당, 영광서 최고위…조국 “특검만이 답”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부 보도에 대해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윤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선거 장현영광군수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

면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범죄고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은 두 말 할 나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 관련,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지휘했다”며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위성 정당’에 불과한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또 “대통령은 공천 개입하면 안 된다. 이는 범죄”라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위성정당에 불과한 검찰이 수사할 리가 없다. 결국 특검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어 영광·곡성 재선거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어떤 당 못지않게 민심을 잘 전달하고, 정치와 행정에 반영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현 후보가 군수가 되면 영광군은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면서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명예 영광군수가 될 것이며, 영광발전을 위해 장현 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진숙, 아토피 치료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 국회의원은 오는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중증아토피연합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와 공동으로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 기념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환경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환경을 점검하고, 정책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한태영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환경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상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중증아토피연합회 박조은 대표, 강미영 건



강보협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환자, 정부 관계자, 의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인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치료 효과를 최대한 살려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환자 중심의 치료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